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98-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한글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조사

2020. 10. 07.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글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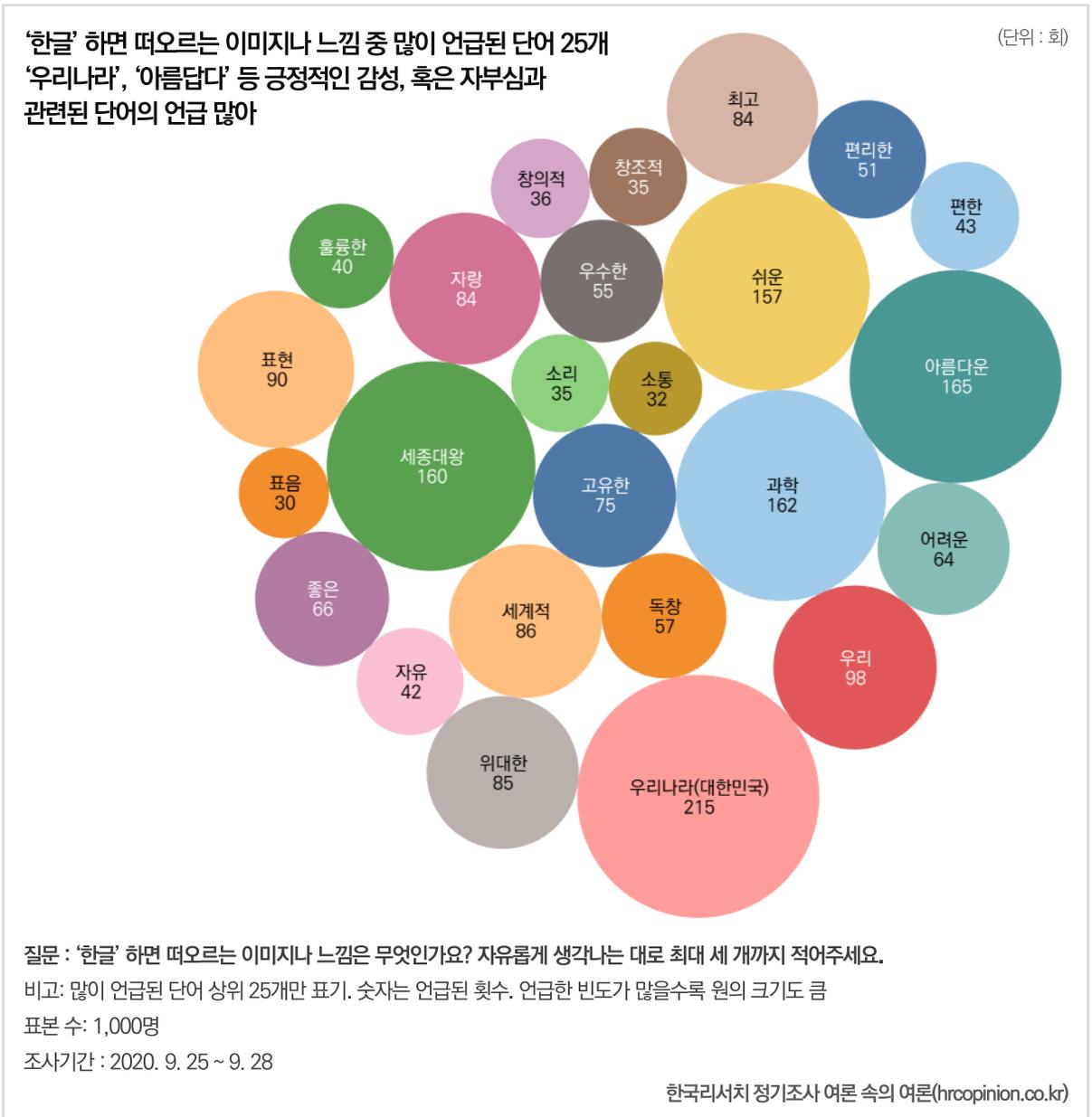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글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한글’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로 ‘우리나라(대한민국)’, ‘아름답다’, ‘과학’, ‘세종대왕’, ‘쉬운’ 등 긍정적인 감성, 혹은 자부심과 관련한 단어들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한글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자부심’, ‘우리 것’, ‘쉬움’ 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전체 응답자의 93%가 일상생활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한국어 문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7%가 스스로 평가할 때, 본인은 문법에 맞게 한국어를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
- 외래어 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44%, 띄어쓰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35%였으며, 60세 이상 고연령대, 고졸 이하 학력 응답자에서 한국어 문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이나 문장을 보았을 때, 응답자의 65%가 ‘글의 내용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고 답했다. 또한 열 명 중 여섯 명(61%)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을 쓴 사람의 교육 수준이 낮아보인다’고 답했다.
- 초성체, 야민정음, 외계어 등 한글 변용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한글 변용 신조어 사용 경험이 높은 젊은 세대, 특히 20대의 생각은 전체 의견과 달리 한글 변용에 대해 긍정적·낙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1

한글에 대한 이미지

한글에 대한 이미지, 상당히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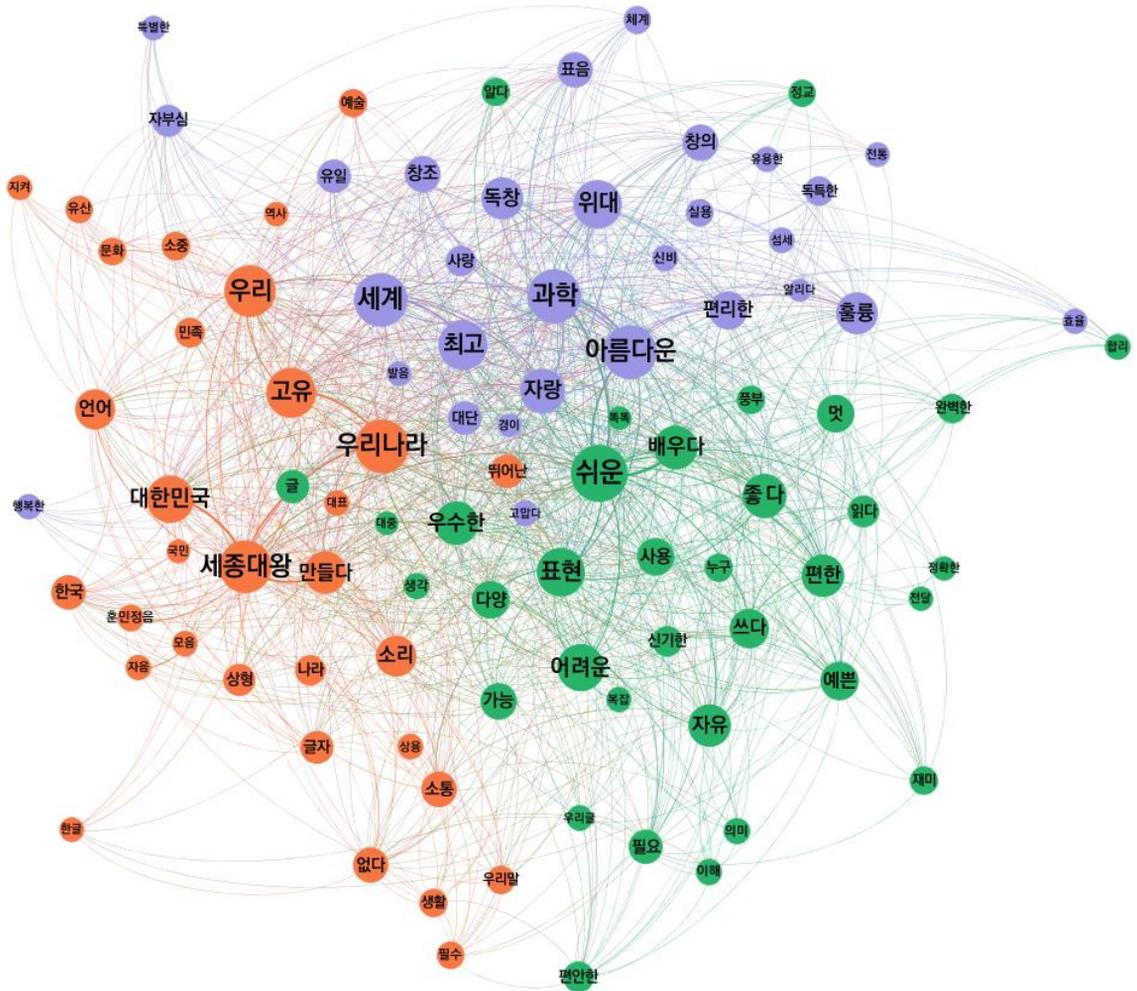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글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한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다섯 개의 단어는 ‘우리나라(대한민국)’, ‘아름답다’, ‘과학’, ‘세종대왕’, ‘쉬운’ 등 긍정적인 감성, 혹은 자부심과 관련한 단어들에 많이 언급되었다. 많이 언급된 25개의 단어들 중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는 1개(‘어려운’)에 불과하였다.



한글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 자부심, 우리 것, 쉬움

연상 단어들의 연결관계를 분석해 보면, 한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축은 “자부심” 으로, 한글은 “아름답고 과학적이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최고의 글자” 이다. 이 축에는 ‘아름답다’, ‘과학’, ‘세계’, ‘최고’, ‘자랑’, ‘위대하다’ 등의 단어가 포함된다. 두 번째 축은 “우리 것” 으로,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자” 이다. 여기에는 ‘세종대왕’,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고유한’, ‘독창적’, ‘우수한’ 등의 단어가 포함된다. 세 번째 축은 “쉬움” 으로, 한글은 “표현하기 쉽고, 배우고 쓰기에도 용이한 좋은 문자” 이다. 세 번째 축에 포함되는 단어는 ‘쉽다’, ‘표현’, ‘배우다’, ‘좋다’, ‘편한’, ‘훌륭한’ 등이다.

한글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은 ‘자부심’(보라색), ‘우리 것’(빨강색), ‘쉬움’(초록색)



질문 : ‘한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느낌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최대 세 개까지 적어주세요.

비고: 응답 빈도수가 높은 주요 단어를 노드(node)로, 단어들 간 연결을 엣지(edge)로 지정해 분석. 그래프 제작 및 동질성 분석은 Gephi 0.9.2 버전 사용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9. 28

연결관계(연결망) 분석 방법

응답자들에게 “한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최대 3개까지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응답 받은 각각의 단어는 연결관계가 있다고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가 ‘대한민국’, ‘아름답다’, ‘세종대왕’ 이라고 답했다면, ‘대한민국’과 ‘아름답다’, ‘대한민국’과 ‘세종대왕’, ‘아름답다’와 ‘세종대왕’ 등 총 3개의 연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1,000명의 응답자가 제시한 단어 중 응답 빈도수가 높은 97개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 각각의 단어를 노드(node)로, 단어들 간의 연결을 엣지(edge)로 지정해 연결망 분석을 진행하였고, 각 단어들의 연결상태를 기준으로 동질성 분석을 진행, 그룹화하였다. 그래프 제작 및 동질성 분석은 Gephi 0.9.2 버전을 사용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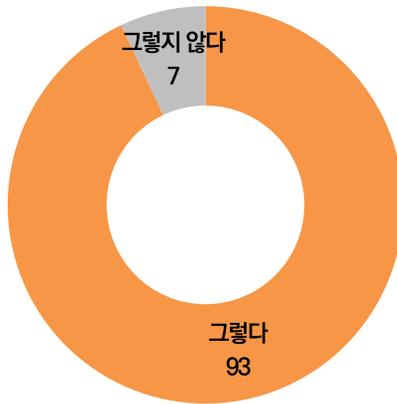
한국어 문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한국어 문법 잘 지키려 노력한다 93%, 문법에 맞게 한국어 잘 사용한다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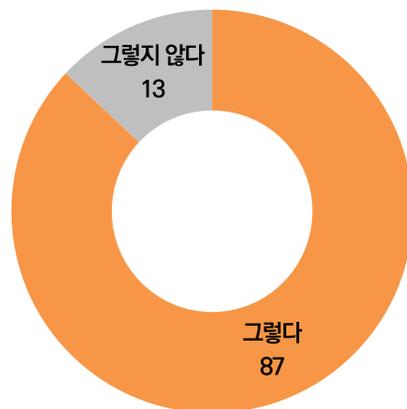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93%가 일상생활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한국어 문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87%가 스스로 평가할 때, 본인은 문법에 맞게 한국어를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올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문법 잘 지키려 노력한다 93%, 문법에 맞게 한국어를 잘 사용한다 87%

(단위 : %)



질문 : 일상생활에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한국어 문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질문 스스로 판단하기에, 귀하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게 한국어를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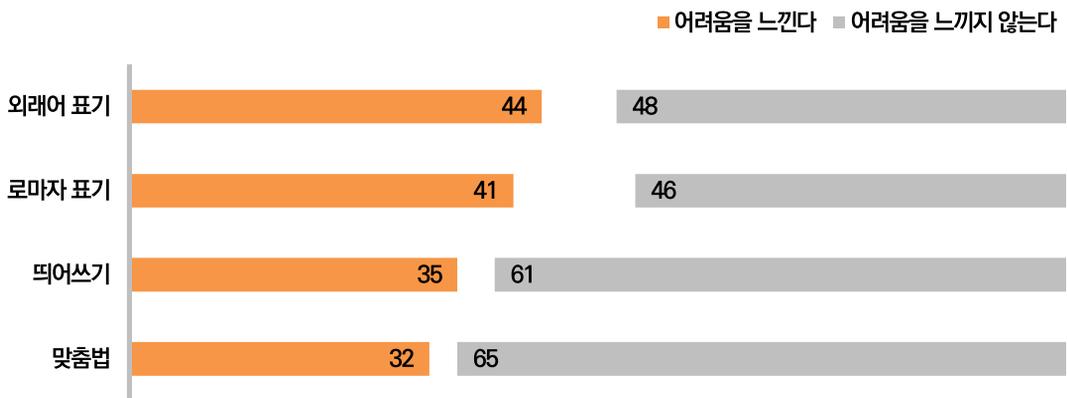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외래어 표기 어렵다 44%, 띄어쓰기 어렵다 35%

띄어쓰기와 맞춤법,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 등 한글 표기와 관련 있는 한국어 문법에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물어보았다. 외래어 표기(외국어 단어·인명·지명 등을 한글로 옮기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로마자 표기(한국어를 라틴 문자(로마자)로 표기하는 것, 41%), 띄어쓰기(35%), 맞춤법(32%) 순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60세 이상 고연령대, 고졸 이하 학력 응답자에서 한국어 문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글 표기와 관련 있는 한국어 문법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외래어 표기
3분의 1은 띄어쓰기, 맞춤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해

(단위 : %)



60세 이상 고연령대, 고졸 이하 학력 응답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다소 높아

		사례수(명)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	맞춤법
■ 전체 ■		(1000)	44	41	35	32
연령	18-29세	(183)	31	38	30	32
	30-39세	(160)	44	40	37	34
	40-49세	(192)	39	32	28	27
	50-59세	(197)	47	46	36	32
	60세이상	(268)	53	48	42	36
학력	고졸이하	(572)	51	44	38	35
	대재이상	(428)	34	37	32	29

질문 : 한국어 사용과 관련해,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9.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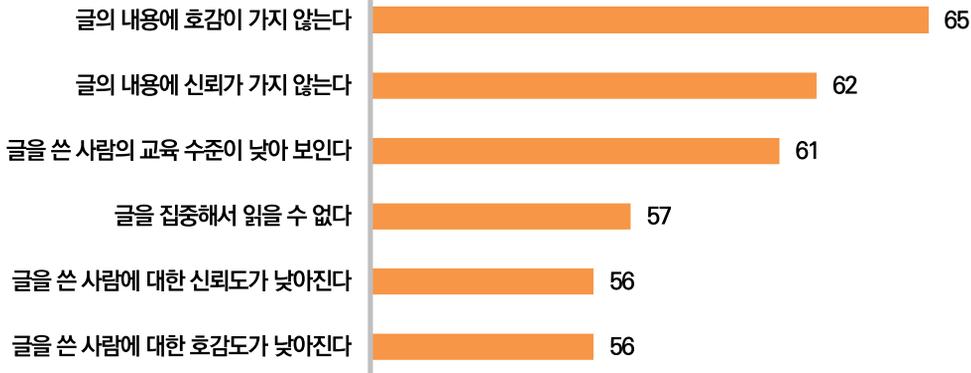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은 호감이 가지 않는다 65%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이나 문장을 보았을 때, 응답자의 65%가 ‘글의 내용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고 답했다. ‘글의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는 응답도 62%였다.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글의 전반적인 수준과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열 명 중 여섯 명(61%)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을 쓴 사람의 교육 수준이 낮아 보인다’고 답했고, 글 쓴 사람의 신뢰도·호감도가 낮아진다는 응답도 각각 56%를 차지하였다. 문법을 잘 지켰는지 여부가 단순히 글에 대한 평가를 넘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졸 이하보다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65%
문법 준수 여부가 글과 글 쓴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단위 : %)



	사례수 (명)	글의 내용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글의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글을 쓴 사람의 교육 수준이 낮아 보인다	글을 집중해서 읽을 수 없다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글을 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진다
▣ 전체 ▣	(1,000)	65	62	61	57	56	56
성별							
남자	(494)	60	56	57	51	54	51
여자	(506)	70	68	66	64	59	61
학력							
고졸이하	(572)	61	56	56	58	50	51
대재이상	(428)	71	70	69	56	64	63

질문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 또는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답변해 주세요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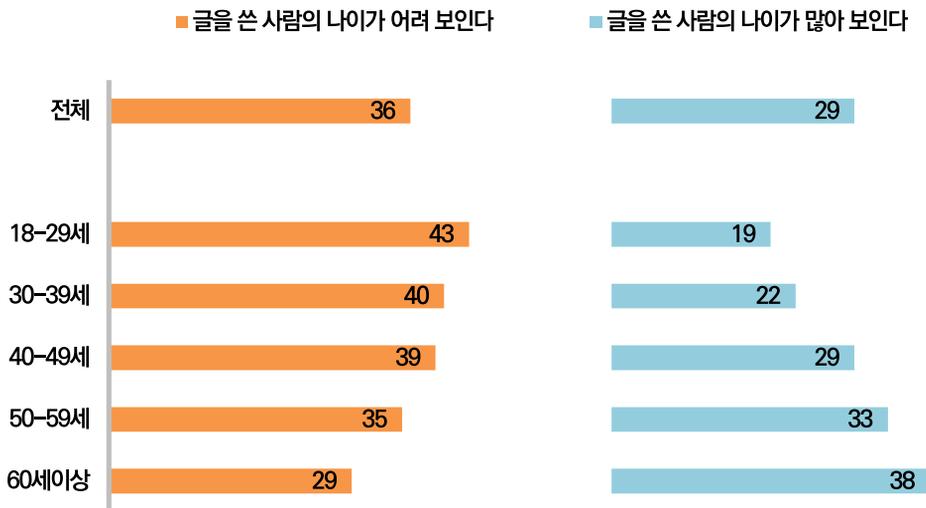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법 안 지키는 글 쓰는 사람 나이가 어려 보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법 안 지키는 글 쓰는 사람 나이가 많아 보인다”

한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어 문법을 잘 안 지키는 연령대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을 쓴 사람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데에는 전체의 36%가 동의했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20대 43%, 60세 이상 29%). 반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을 쓴 사람의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데에는 전체의 29%가 동의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20대 19%, 60세 이상 38%). 2,30대에서는 저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어 문법을 잘 안 지키는 인식이 강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반대로 고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어 문법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법을 안 지키는 글 쓰는 사람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법을 안 지키는 글 쓰는 사람의 나이가 많아 보인다’

(단위 : %)



질문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글 또는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답변해 주세요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9.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한글 변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 경험, 초성체 > 야민정음 > 외계어 순, 젊은 세대일수록 사용 경험 높아

한글을 변용한 신조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야민정음(모양이 비슷한 글자끼리 서로 바꿔 쓰는 것. 귀엽다 → 커엽다, 멍멍이 → 땡땡이, 방귀대장 뽕뽕이 → 방커머툼 으어똥어똥 등). 초성체(한국어 단어의 초성만 쓰는 것. 감사 → ㄱㅅ, 죄송 → ㅈㅅ, 오케이 → ㅇㅋ 등), 외계어(한국어 외에 다양한 언어, 특수문자를 섞어 사용하는 것. 내일 학교에서 봅시다 → 네일 향교에서 봉씨㉸ㅏ, 말하지 않아도 → 말ㅇㅏ즈ㅣ 않ㅇㅏ도 등) 등이 있다. 각각의 사용 경험을 물어 본 결과, 초성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았다. 야민정음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5%였고, 외계어 사용 경험은 8%에 그쳤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빠르고 간편한 초성체의 사용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초성체 사용 경험 있다 66%, 야민정음 사용 경험 있다 25%

(단위 : %)

■ 사용 경험 있음 ■ 본 적은 있지만, 실제 사용 경험 없음 ■ 사용 경험 없음



질문 : 다음 각각의 신조어 문체나 표현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교: 초성체 - 한국어 단어의 초성만 쓰는 것(감사 → ㄱㅅ, 죄송 → ㅈㅅ, 오케이 → ㅇㅋ 등)

야민정음 - 모양이 비슷한 글자끼리 서로 바꿔 쓰는 것(귀엽다 → 커엽다, 멍멍이 → 땡땡이 등)

외계어 - 한국어 외에 다양한 언어, 특수문자를 섞어 사용하는 것(내일 학교에서 봅시다 → 네일 향교에서 봉씨㉸ㅏ 등)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 9. 25 ~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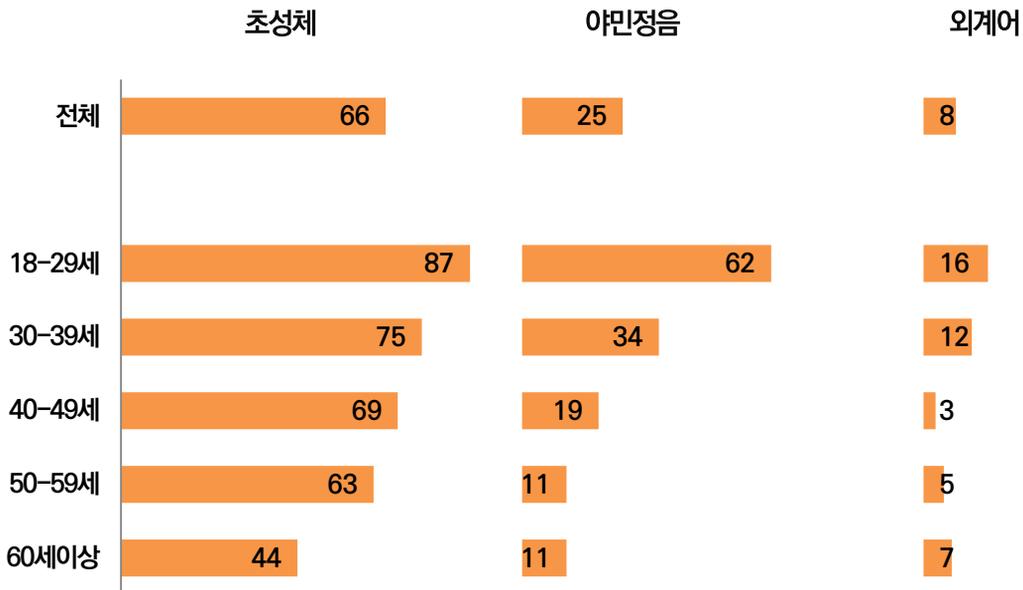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젊은 세대일수록 한글 변용 신조어 사용 경험 높아

세대별로 한글 변용 신조어 사용 경험의 차이가 컸다. 특히 20대에서는 야민정음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초성체와 외계어 역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87%, 16%로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조어의 사용 경험은 줄어들었는데, 60세 이상 응답자 중 야민정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1%, 초성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4%로 모두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글 변용 신조어 사용 경험 높아
특히 20~30대는 야민정음, 초성체 사용 경험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아

(단위 : %)



질문 : 다음 각각의 신조어 문체나 표현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교: 초성체 - 한국어 단어의 초성만 쓰는 것(감사 → ㄱ사, 죄송 → ㅈㅅ, 오케이 → ㅇㅋ 등)

야민정음 - 모양이 비슷한 글자끼리 서로 바꿔 쓰는 것(귀엽다 → 커엽다, 멍멍이 → 땡땡이 등)

외계어 - 한국어 외에 다양한 언어, 특수문자를 섞어 사용하는 것(내일 학교에서 봅시다 → 네일 학교에서 봉씨㉸ 등)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9.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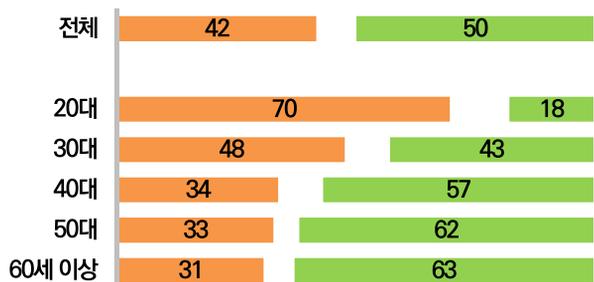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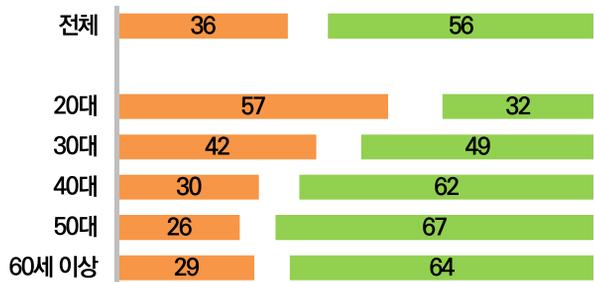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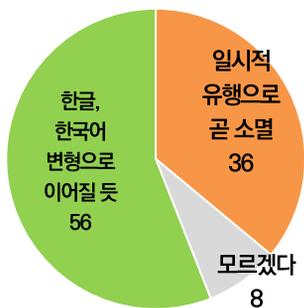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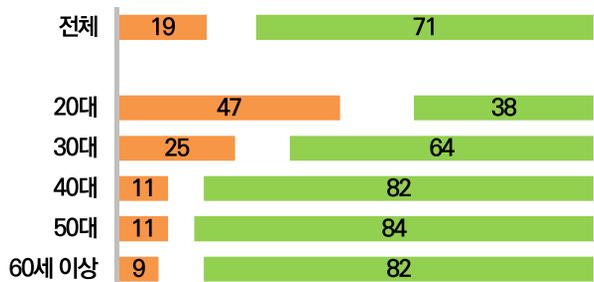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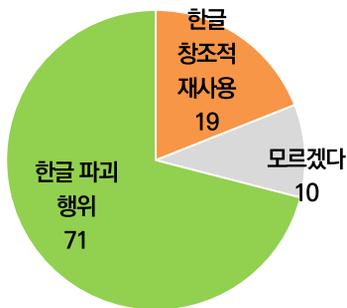
한글 변용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 다수, 하지만 20대에서는 예외

한글 변용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글 변용은 한글 파괴 행위라는 응답이 71%로 한글을 창조적으로 재사용하는 행위라는 응답(19%)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한글 변용이 장기적으로는 한글이나 한국어의 변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과반 이상이었다. 또한 한글 변용이 소통과 재미를 위한 언어유희라는 의견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은 소외시키는 언어폭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한글 변용 신조어 사용 경험이 높았던 젊은 세대, 특히 20대의 생각은 전체 의견과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한글 변용을 언어유희로 규정하는 의견이 70%로, 언어폭력이라는 의견(18%)보다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변용은 한글을 창조적으로 재사용하는 행위(47%)이며, 한국어 변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행한 후 곧 소멸할 것(57%)이라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낙관적인 인식이 인터넷 문화와 결합하면, 한글 변용이 하나의 문화와 규범으로 오랜 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글 변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다수이나, 20대는 긍정적·낙관적 의견 우세

(단위 : %)



질문 : 앞서 예시로 보여드린 한글 변용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9.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19년 8월 기준 약 5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629명 , 조사참여 1,275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1%, 참여대비 78.4%)
조사일시	• 2020년 9월 25일 ~ 9월 2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